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선 (중앙대학교)**·이희수(중앙대학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이나 사회경제적 성취에서의 기회불평등 인식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요인은 성별, 학년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인 분석을 계획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및 개인별 특성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82명의 자료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41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하여 t-검증과 다중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성별로는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요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이 1-2학년이나 3학년 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 요인에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의 세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 요인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회불평등인식이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진로탄력성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젠더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취업난 속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기회의 평등과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해 준다.

주제어 : 대학생의 진로,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 본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wellcode@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E-mail: heesu@cau.ac.kr; Tel: 02-820-5367; Fax: 02-827-0944.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생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대학생 진로교육 실태조사(교육부, 2017)에 따르면, 대학생활 고민 1위는 4년제 대학생의 60%, 전문대학생의 59%가 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취업·진로 관련 교과목 개설,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턴 과정과 현장실습 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및 직업환경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은 예전보다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진로준비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조영아·정지은, 2017). 대학생 시기는 삶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준비하여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진로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박연옥 등, 2017)로, 자신의 미래 일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나가는 과정은 이후 삶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변인을 연구문제로 하여 활발하게 다루어져왔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성취동기, 정서지능, 창의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나 가족배경, 취업현실여건 등의 환경적 요인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강현희, 2015; 김민정, 2016) 진로탄력성은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역경을 인내하고 적응해나가는 역량(Noe et al., 1990)으로,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에는 취업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하는 '기회불평등인식'도 포함될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장주희, 2017).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자본주의적 사회질서 안에서의 구조적 제도적 불공정으로서, 이를 사회 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방영준, 2001). 취업에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은 좌절과 포기로 이어져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탄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 기회의 형평성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김영미, 2016).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과 기관들이 불평등의 폐해를 주요이슈로 지적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불평등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성민 등, 2016). 이를 개선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취업에서의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중앙일보, 2017)에 나타

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준다. 최근 채용비리 관련 문제가 크게 보도되는 가운데 기회불평등인식과 채용과정의 공정성 인식은 사회적으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현장에서 진로교육과 취업진로상담 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태도적 차원을 넘어 행동적인 차원이 포함된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 행위(김봉환·김계현, 1997)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송현심·홍혜영, 2010; 오승국, 2016; 정대인·홍아정, 2015).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성된다(김봉환·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종훈·김현희, 2016; 백사인, 2011; 이종찬, 2013; 황지영, 2015)이나 성취동기(김지연·이기학, 2014), 정서지능(김정근, 2012), 창의성(정대인·홍아정, 2015), 진로탄력성(김희동·남수미, 2016; 염태영, 2017; 최유진·손은정, 2016) 같은 개인적 특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김중학·최보영, 2015; 송현심·홍혜영, 2010; 장현지·홍아정, 2014)나 가족배경(심정호, 2016; 유수복, 2013), 취업현실여건(강현희, 2015) 등의 환경적 요인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적 특성 변인이나 진로와 관련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조영아와 정지은(2017)이 수행한 메타분석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진로장벽 인식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희, 2015; 김민정, 2016; 백사인, 2011; 이순희, 2017; 장용희 등, 2016).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

준이 낮음을 뜻하는 것으로, 취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취업의 문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못하며, 진로장벽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채용 정책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출신대학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으로 취업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고, 비 혜택 집단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오석홍, 2018).

2.2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에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이 있다. 진로탄력성이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인내하고 유연하게 적응해나가는 것을 말한다(Noe et al, 1990). 즉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강현희, 2015; 김미경, 2014; London & Noe, 1997; Lopes, 2006).

진로탄력성은 진로선택과 성취, 적응의 단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통신 및 사물인터넷 기반의 융복합적 산업 발달에 따른 신직업의 출몰로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는 단선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발달하고, 개인은 일생동안 수차례 직업을 바꿔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유현실, 2013). 이런 점에서 진로탄력성은 결과이면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Holaday & McPhearson, 1997).

진로탄력성이라는 말은 ‘자아 탄력성’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는데(Noe et al., 1990),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변화하지 않는 성격적 특성으로 규정되는 데 비하여, 진로탄력성은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개인이 부정적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다(김정숙·이기혜, 2016). London(1983)은 진로탄력성을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과 함께 진로동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진로탄력성을 진로취약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 그는 진로탄력성이 혼란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의존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현실(2013)은 진로탄력성 개념 논의에서 진로탄력성을 예상하지 못한 직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정한 특질로 보았다. 즉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 목표 방해, 불확실성, 동료와의 관계 악화 등 일이나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탄력성의 개념은 대부분 London의 진로동기이론에 토대를 두고 진로동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서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김미경(2014)이 진로탄력성 척도를 개발하면서 진로탄력성이 독립적인 변인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김미경은 선행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여 진로탄력성 구성요소를 개인적 요소, 직무적 요소, 사회적 요소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요소에는 자기신뢰와 성취열망을, 직무적 요소에는 진로자립과 변화대처를, 사회적 요소에는 관계활용을 제시하였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희동 · 남수미, 2016; 염태영, 2017; 최유진 · 손은정, 2016).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준비행동에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강현희(2015), 조현경과 유금란(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2.3 기회불평등인식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이다(구교준 등, 2016).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 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이병훈, 2017).

한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계층 상승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소외 계층은 열심히 노력하여 입신양명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유계층의 자산을 나눠 갖기 위한 제로섬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다(이중수, 2013).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이 확대되고 사회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회구조의 불평등은 가치의 분배 그 자체보다도 그 가치를 획득하는 수단에서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성공의 기회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느냐의 문제이다(방영준, 2001). 가족배경, 출신지역, 성에 따라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 등에서 격차가 나타나, 이미 고등학생 시기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 격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신광영, 2016). 이것은 노동시장 기회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청년층의 주관적 인식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영미, 2016).

대부분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남춘호, 2003), 청년기에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에 따라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김영미, 2016).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는 Rawls(1971)는 ‘정의론’에서 사회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지위와 직책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접근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하였다. 안정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지의 여부는 장기적인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김태기 · 남재량, 2000; 최윤 · 이왕원, 2015)이므로, 청년 취업 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채용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면에 주목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은 취업 준비생

들에게 균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진실 등, 2015). NCS 기반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채용기준의 사전공개와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역량평가로서, 이것은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정보를 배제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 경력, 경험, 자격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장주희, 2017).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만남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이종찬·박지현, 2015). 더욱이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고용노동부, 2017). 그동안 차별을 야기했던 학벌, 성, 출신지, 연령 등에서의 편견을 배제하고 채용과정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능력 중심의 선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참여정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이명박 정부의 열린 고용,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인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맥을 잇고 있다(장주희, 2017).

취업 및 채용에서 신분이나 가족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에 대한 접근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성 지각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행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가치이다(장상수 등, 2015; Corning, 2011). 조직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듯이(전도성, 2016), 채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터하여 진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간과하기 쉬운 사회·환경적 요인인 기회불평등인식이 대학생의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채용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회불평등 인식 요인과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탄력성 요인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취업의 기회가 공평하다는 인식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모형의 검증과 함께 대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집단적 차이도 분석해 보

려고 한다.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은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체로 설정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충남 천안에 소재한 D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48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을 제외한 41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은데, 남학생이 132명(31.8%), 여학생이 283명(68.2%)으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학년별로는 1학년 16명(3.9%), 2학년 89명(21.4%), 3학년 128명(30.8%), 4학년 182명(43.9%)으로, 1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에 비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학년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별	남	인원	4명	17명	36명	75명	132명
		성별 내	3.0%	12.9%	27.3%	56.8%	100.0%
		학년 내	25.0%	19.1%	28.1%	41.2%	31.8%
	여	인원	12명	72명	92명	107명	283명
		성별 내	4.2%	25.4%	32.5%	37.8%	100.0%
		학년 내	75.0%	80.9%	71.9%	58.8%	68.2%
총계		인원	16명	89명	128명	182명	415명
		성별 내	3.9%	21.4%	30.8%	43.9%	100.0%
		학년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3.3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진로탄력성, 기회불평등인식 및 집단특성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배포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총 4주간, 7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진로준비행동, 진로탄력성, 기회불평등인식 및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이다. 설문지를 제작한 후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았고, 대학생 10명에게 파일럿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3.4.1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은 동그라미재단(2016)에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 인과분석(이병훈, 2017)에 사용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데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배경(성, 소득, 집안 등)에 따라 취업기회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경제적 위치는 개인 노력의 결과인가, 한국 사회는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은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가를 묻는 내용으로, 총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기회불평등인식의 문항 중 불평등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기회불평등인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회가 더 평등하다고 보는 것을 나타낸다. 기회불평등인식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4로 나타났다.

이 문항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의 5문항만으로 요인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문항들과 함께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기회불평등인식 문항들은 공통성이 모두 0.4 이상이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와 이 문항들이 기회불평등인식에 관한 적절한 구성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기회불평등인식의 요인분석

요인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기회불평등 인식	불평등	0.734	0.569
	기회보장	0.714	0.610
	노력성취2	0.690	0.525
	노력성취1	0.688	0.562
	노력성취3	0.611	0.503

3.4.2 진로탄력성 척도

진로탄력성의 측정도구는 김미경(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나 자신을 믿는다.” 등의 자기신뢰 관련 6문항, “나는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 등의 성취열망 6문항, “나는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진로자립 6문항, “나의 진로에 갑작스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 등의 변화대처 6문항, “나는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등의 관계활용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값이 0.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0.93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3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추출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 지수가 0.93으로 나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3개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분석을 한 결과 <표 3>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끼리 묶였다.

<표 3> 진로탄력성 문항의 요인분석

개념	요인	설문내용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진로탄력성	진로 자립	자립3;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배움	0.802	0.775	4.28	15.85
		자립2;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함	0.798	0.771		
		자립4;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함	0.773	0.692		
		자립1; 진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학습함	0.765	0.698		
		자립6;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함	0.701	0.666		
		자립5;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	0.551	0.419		
	자기 신뢰	신뢰2; 결국 잘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	0.828	0.782	4.02	14.87
		신뢰3;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자신	0.800	0.795		
		신뢰4;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	0.763	0.708		
		신뢰1; 나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0.763	0.741		
		신뢰6;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	0.646	0.615		
		신뢰5; 내가 원하는 진로에서 성공할 자신	0.548	0.456		
	관계 활용	관계2; 좌절할 때 친구나 가족의 위로가 도움됨	0.819	0.727	3.34	12.52
		관계3; 주위사람들과 대화로 진로스트레스 해소	0.811	0.683		
		관계4; 주변에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의 존재	0.809	0.723		
		관계1; 함께 재충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0.679	0.581		
		관계6;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음	0.626	0.487		
		관계5; 내가 생각하는 성취기준이 있음	0.723	0.565		
	성취 열망	성취3;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음	0.645	0.641	3.00	11.11
		성취1; 내가 추구하는 삶의 비전이 있음	0.622	0.573		
성취5; 목표를 이룬 모습에 대한 의욕이 있음		0.616	0.545			
성취6;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음		0.598	0.685			
성취2;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 설정		0.524	0.432			
성취4; 내가 생각하는 성취기준이 있음		0.723	0.565			
변화 대처	변화4; 갑작스런 변화에 차분하게 대처	0.754	0.630	2.27	8.41	
	변화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용이	0.702	0.567			
	변화6; 갑작스런 진로변화에 유연한 대처	0.640	0.551			
	변화1; 역동적인 변화를 즐김	0.481	0.439			

3.4.3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에, 임은미와 이명숙(2003)이 인터넷 진로정보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수집활동과 대학교의 취업진로지원기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두 문항을 추가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자신과 직업세계 탐색을 위한 정보수집행동 6문항, 준비과정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인 도구준비행동 5문항,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 7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은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등과 같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묻는 내용이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0.88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

서는 0.89로 나타났다.

총 1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추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요인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 지수가 0.86으로 나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요인 중에 선행연구에서 실천노력과 도구준비로 분류한 것이 섞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 두 요인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도구준비 2번 문항인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와 같은 문항은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노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출된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첫 번째 요인을 실천노력, 두 번째 요인을 도구준비로 명명하였다.

<표 4> 진로준비행동 문항의 요인분석

개념	요인	설문내용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진로준비행동	실천노력	실천5: 취업진로 관련 지원기관 방문상담	0.751	0.577	3.15	21.03
		실천3: 직업진로 관련 전문가와 대화	0.674	0.577		
		실천4: 관심분야 종사자와 대화	0.650	0.533		
		도구3: 자기탐색 위한 적성, 흥미검사 실시 경험	0.602	0.406		
		실천1: 관심 분야 방문 및 방문계획 수립	0.591	0.520		
		도구2: 관심 직업 관련 안내책자 구입 또는 읽음	0.586	0.532		
		실천2: 관심 직업진로 관련 TV시청, 설명회 참관	0.559	0.467		
	도구준비	도구5: 구입한 교재 등으로 진로준비	0.785	0.709	2.79	18.57
		도구4: 관심직업 입문 위해 필요한 교재 등 구입	0.764	0.672		
		실천6: 직업 입문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며 준비	0.716	0.559		
	실천7: 진로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 체크	0.497	0.537			
정보수집	정보1: 친구들과 적성, 진로, 취업에 대해 대화	0.778	0.639	2.52	16.78	
	정보4: 관심 직업진로 관련 자료 인터넷 탐색	0.722	0.643			
	정보5: 관심분야 진출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탐색	0.693	0.624			
	정보2: 부모님과 적성, 진로, 취업에 대해 대화	0.648	0.479			

3.4.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총 415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SPSS 2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및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세 요인 간의 상관분석, 성별 및 학년별 집단 특성에 따른 t-검증 및 다중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기회불평등인식의 영향 및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등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었다.

IV. 연구결과

4.1 성별 및 학년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요인인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특성에 따라 각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4.1.1 성별 차이 분석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세 요인 모두에서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학생 (n=132)	여학생 (n=283)	남학생	여학생		
기회불평등인식	2.68	2.38	0.64	0.58	4.75	0.000***
진로탄력성	3.90	3.64	0.52	0.48	5.33	0.000***
진로준비행동	3.38	3.15	0.67	0.66	3.24	0.000***

※ *p<0.05, **p<0.01, ***p<0.001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요인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대학생의 진로 관련 요인인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4.1.2 학년별 차이 분석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이 16명으로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2학년생과 동질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1-2학년을 한 집단으로 묶어 분석을 하였다. 학년별로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요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학년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학년	N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2학년	105	2.40	0.60	3.69	0.46	3.12	0.61
3학년	128	2.43	0.64	3.69	0.50	3.02	0.67
4학년	182	2.54	0.60	3.77	0.54	3.42	0.65
총계	415	2.47	0.61	3.71	0.51	3.22	0.67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탄력성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어떤 집단끼리 차이가 있는가를 사후검정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4학년이 1-2학년 및 3학년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탄력성에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진로준비행동에서는 4학년 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p<0.01$).

<표 7> 학년별 차이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유형 III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학년	기회불평등인식	1.71	2	0.86	2.29
	진로탄력성	0.59	2	0.29	1.12
	진로준비행동	13.67	2	6.83	16.22**

※ * $p<0.05$, ** $p<0.01$

4.2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요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된 세 요인의 점수에서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

〈표 8〉 진로 요인의 평균점수

요인	평균점수	표준 편차
기회불평등인식	2.47	0.61
진로탄력성	3.72	0.51
진로준비행동	3.22	0.67

세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처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탄력성과의 상관은 0.221,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은 0.201로 나왔다. 이는 취업의 기회가 공정하다고 볼수록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한편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은 0.545로 나왔다. 기회불평등인식 요인보다는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진로요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요인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기회불평등인식	1		
진로탄력성	0.221**	1	
진로준비행동	0.201**	0.545**	1

※ * $p<0.05$, ** $p<0.01$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표 10>과 같은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이 결과는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이 영향력은 작지만 진로탄력성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기회불평등인식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B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기회불평등인식	상수	0.20		2.70	0.007**	R=.545, R ² =.297 수정된 R ² =.296 F=174.75, p=000
	진로탄력성	0.05	0.55	13.22	0.000***	

※ * $p<0.05$, ** $p<0.01$, *** $p<0.001$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은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p<.01$). 이것은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이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진로준비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나타내준다.

〈표 11〉 기회불평등인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B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기회불평등 인식	상수	0.14		19.87	0.000***	R=.201, R2=.041 수정된 R2=.038 F=17.47, p=000
	진로준비행동	0.05	0.20	4.18	0.000***	

※ *p<0.05, **p<0.01, ***p<0.001

4.3 진로탄력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진로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기회불평등인식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탄력성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방법에 의해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표 12〉가 그 결과인데, 1모형과 2모형을 비교해 보면,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1). 1모형에서 기회불평등인식의 계수 0.221이 2모형의 0.093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매개변인인 진로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 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매개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유성모, 2015).

〈표 12〉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값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2.675	0.14		19.87**
	기회불평등인식	0.221	0.05	0.201	4.18**
2	(상수)	0.413	0.21		1.92
	기회불평등인식	0.093	0.046	0.085	2.01*
	진로탄력성	0.693	0.060	0.526	12.49**

종속 변수: 진로준비행동

※ *p<0.05, **p<0.01

진로탄력성과 기회불평등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모형에서 진로탄력성은 기회불평등인식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나 사회경제의 성취 측면에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4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성별 및 학년별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탄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진로준비행동에서는 4학년 학생이 1-2학년이나 3학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의 세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불평등인식 요인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나타낸다.

셋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탄력성을 통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진로탄력성이나 진로준비행동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문경자·조은정, 2017; 최인선, 2016)와 유사한 결과이다. 기회불평등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기회불평등으로 인해 취업률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취업의 질 측면에서도 젠더격차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에서 여성과 남성은 교육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도 여성들은 정규직 취업비율이 낮으며, 모든 지위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김영미(201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과 차별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서 4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김봉환, 1997; 심정호, 2016; 양은주, 201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3학년까지는 진로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취업이 임박한 4학년에 와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된다(장용희 등, 2016)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변화된 NCS기반 채용환경에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취업·진로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지원 분야에 적합한 실무경험과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둘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은 가설에서 설정한 것처럼 진로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고, 이 두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연구결과로 유추해 보면 취업의 기회가 평등하거나 채용과정이 공정하다고 보는 학생이 진로탄력성도 높고, 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본인이 현재 처해있는 취업의 역경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공정하게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자기믿음과 성취열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블라인드채용 정책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며, 이 정책을 확산시킬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셋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는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강현희(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업에서의 기회평등과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더불어, 진로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진로탄력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진로 연구에 기회불평등인식 변인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진로분야 연구에 사회·환경적 요인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킨 연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하위요인을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변인에 대한 정교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장시켜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다양한 표본을 표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현희(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고용노동부(2017),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7월 5일자).
- 교육부(2017), “2017년 대학 진로교육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12월 14일자).
- 구교준·김희강·최영준·이희철·박일주(2016),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행정논총**, 54(2), 31-59.
- 김미경(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영미(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정근(2012), “개인 및 환경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61-179.
- 김정숙·이기혜(2016), “일반 청소년 및 빈곤 청소년의 탄력성 결정요인 비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2), 31-56.
- 김종학·최보영(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 김중훈·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97-814.
- 김지연·이기학(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진실·정형철·김연식·조양래(2015), “NCS를 활용한 채용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NCS 채용 성과를 중심으로”, **직업과 자격연구**, 4(1), 65-84.
- 김태기·남재량(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81-106.
- 김희동·남수미(2016), “비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 유니테크(Uni-Tech) 통합교육과정 참여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합연구**, 14(2), 53-80.
- 남춘호(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4(2), 5-43.
- 동그라미재단(2016),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 서베이 데이터 설문지**.
- 문경자·조은정(2017), “간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예측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2(2), 127-135.
- 박연옥·박수진·허정(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 방영준(2001),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윤리연구**, 47(1), 83-99.
- 백사인(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 91-109.
- 서성민 · 이진수 · 오유진 · 김시연 · 문유진 · 주수정(2016), **2016년 청년허브 기획연구: 청년 세대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서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
- 송현심 · 홍혜영(2010), “대학상담: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 기호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광영(2016), “기회불평등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서문”, **동그라미재단 연구리포트** 4, 1-7.
- 심정호(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양은주(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염태영(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오석홍(2018),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득실”, **한국행정포럼**, 159, 10-15.
- 오승국(2016),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유성모(2015), **논문작성을 위한 SPSS실전통계분석: 매개효과,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황소걸음아카데미.
- 유수복(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유현실(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 연구**, 14(1), 423-439.
- 이병훈(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 이순희(2017), “대학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23-44.
- 이종수(2013),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종찬 · 박지현(2015), “대학생 취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NCS 기반 채용의 활용가능성 탐색”, **취업진로연구**, 5(4), 139-160.
- 임은미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장상수 · 김상욱 · 신승배(201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 장용희 · 이재신 · 신의수(2016),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종합연구**, 14(3), 163-184.
- 장주희(2017),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2017-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지 · 홍아정(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17-40.
- 전도성(2016),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 효과성: 충청북도 일반직, 소방직, 경영직 공무원들**

-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정대인·홍아정(2015),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창의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3(2), 39-59.
- 조영아·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 조현경·유금란(2017), “재취업구직자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6), 1-19.
- 중앙일보(2017),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http://news.joins.com/article/21558717>(2018. 2.10 download)
- 최유진·손은정(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 최을·이왕원(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잠재집단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49(5), 1-44.
- 최인선(2016),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황지영(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Comings, P.(2011), *The Fair Society: The Science of Human Nature and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병화 역(2011),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서울: 에코리브르.
- Holaday, M. & McPhearson, R. W.(1997), “Resilience and severe bur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346-356.
- King, A. S.(1999), “Crescendo model of career motiv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insight,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Based Management*, 12(1), 22-49.
- Krumboltz, J. D.(1998), “Counsellor actions needed for the new career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6(4), 559-564.
- London, M.(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4), 620-630.
- _____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London, M. & Mone, E. M.(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ondon, M. & Noe, R. A.(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1), 61-80.
- Lopes, T.(2006),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career motiv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graduate students by age and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역(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Preparation Behavior

Eun-Sun Kim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Hee-Su Le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recogni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in employment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may influence th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o prepare for career when blind adoption is spreading.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constructed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planned to investigate whether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affects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gender and the grade level among the three factors.

For this study,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students in a local university. Of the total 482 data, 415 answered sincerely were collected and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the items were conducted. For the hypothesis test, t-test, multiple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mal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female students in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erms of grade, grade 4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students in grades 1-2 or grade 3.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factors of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of recogni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is a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career 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ch means that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career resilience.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and career resilience factors were analyzed to explain about 30%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 suk-ro, Dong jak-gu, Seoul, Korea, 06974; E-mail: heesu@cau.ac.kr; Tel: +82-2-820-5367; Fax: +82-2-827-0944.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is needed from the lower grades in the education and counseling field of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issues in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facilit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programs to increase career resilience. It also raises the necessity to continue to set up and spread the system that guarantees equality of opportunity such as blind adoption and fairness in recruitment process under youth career crisi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areer,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Career resilience, Career-preparation behavior, Career barrier.*

K C I